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자립교회 성장을 위한 정책 자료집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개혁 제시안 포럼 2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개혁 레시피



SESSION 2

교회개척과 성장을 돕는
개척 레시피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
SESSION 2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격려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실제적인 많은 문제로 전도와 선교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과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아직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던 것에서 워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 전환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때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김정석 감독
(선교국 위원장)

선교국에서는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 레시피’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개척에 대한 좋은 사례들,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한 노하우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비전과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모교회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감리교회는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의 모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모두가 함께 세워나갈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또한 해외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헌신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응원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을 위해, 자신의 목회 경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분들과 집필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개척 과정에 있거나 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간사

전국에 계신 목회 동역자 여러분과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문안드립니다.

맛있고 유명한 음식점에는 그 가게 나름대로 오래된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법 혹은 전통이라 부릅니다. 많은 음식점들은 이 유명한 가게의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겨 그것을 알아내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냈다면 그 비법대로 따라만 해도 분명 그럴싸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점의 비법에 비유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부흥에는 그런 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목회의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 “바른 목회와 교회 성장에는 비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비법, 요령은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만 하고, 흥내만 내도 효과 만점인 비법은 없습니다.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오일영 목사
(선교국 총무)

그렇다면 왜 ‘개척레시피’입니까? 무엇 때문에 개척레시피라고 이름붙여 이 책을 냈습니까?

이 책은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목회 선배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이전에는 막연하게 생각되었던 목회현장과 상황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준비하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가 이 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책은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누며 이것을 믿고 도전하시라는 요청과 조언의 책입니다.

바라기는 이 책을 읽으며 목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같은 목회적 소망을 갖고 있는 길동무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분명 막연하게 생각했던 실제적인 이야기들에 당황하고 혹은 미처 생각 못한 문제를 만날 때에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변화가 이 책을 발간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교회 이야기를 솔직하게 소개해 주신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내어 목회 현장으로 달려나갈 후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차

격려사 김정석 감독(선교국 위원장)	/ 04
발간사 오일영 목사(선교국 총무)	/ 06

개척 사례

1. 선교-전도 중심교회	/ 12
1) 용인 다릿목교회 _양홍석 목사	
2) 세종 임마누엘교회 _김영훈 목사	
3) 서울 은평빛의숲교회 _강민철 목사	
4) 위례 주는사랑교회 _심기도 목사	
2. 사역 중심 교회	/ 42
1) 서울 꿈의교회 _신동훈 목사	
2) 대전 주빛교회 _김광영 목사	
3. 어린이 청소년 교회	/ 57
의정부 예수소망교회 _고상원 목사	

4. 농어촌교회 / 65

평창 도천교회_김진호 목사

5. 복지 중심 교회 / 71

대구 북대구교회_양경규 목사

6. 문화 중심 교회 / 78

서울 햇빛교회_송성민 전도사

| 감리회 국내 미자립교회 현황 | 국내선교부 / 86

| 나가는 글 | / 88

개척 사례

1. 선교-전도 중심 교회
2. 지역 중심 교회
3. 어린이 청소년 교회
4. 농어촌교회
5. 복지 중심 교회
6. 문화 중심 교회

용인 다릿목교회 _양홍석 목사

2015년 교회를 개척했다.

아니 교회가 시작되었다. 전혀 연고가 없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이란 동네, 그것도 아주 작은 아파트 상가 2층에서... 밖에서 보면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길가 나무가 크게 자라 가리워진 곳, 그곳에서 그렇게 시작했다. 꿈이 있었고,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되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외형적으로는 아직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지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며 도시영성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추구하는 우리 다릿목교회 이야기다.

1. 교회 기본정보

마북동은 한성CC를 끼고 용인 외곽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이다. 현재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4교회(칼빈교회(장로), 늘푸른교회(순복음), 말씀교회(장로), 구하리교회(장로))가 있으며 이외 상가교회들이 위치한 곳으로 상권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대부분의 구성원인 동네이다. 감리교회로서는 다릿목교회가 유일하다. 다릿목교회는 1996년 신

창아파트(490세대) 입주 시부터 계속 교회로 사용되던 공간을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창립되었다.

칼빈교회가 약 80여명, 늘푸른교회는 약 100여명, 말씀교회는 약 200여명, 구하리교회는 약 70여명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지역내 큰 교회보다는 중소형교회가 밀집되어 있었다. 개척한 장소에서 멀지않은 곳에 새로운 임대자리가 마련되어 2020년 10월 기도하고 이전을 결정하였다.

2. 개척동기와 과정

너무도 개척이 하고 싶었다. 아니 철없는 어린이처럼 몸부림쳤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저곳 다니기 시작했다. 개척자리가 도대체 어디가 좋을지... 그런데 그 때마다 첫 번째로 날아오는 질문이다.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준비되셨나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실상 앞서 밝힌 대로 수중에는 한 푼도 없었다. 100만원, 그것도 지인 장로님이 카페에서 만나 하나님을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셨다며 주고 가신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부동산 중계업을 하는 집사님을 통해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들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참 무모했다. 그럼에도 무슨 생각인지 개척을 꿈꾸며 신도시를 먼저 탐색하였다. 나름 강남출신이고 부목사로 사역한 곳도 대도시였기에 경험상 충분히 신도시에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름 리서치를 마치고 선택한 곳은 당시 입주를 막 시작한 세교신도시였다. 약 12만명의 입주자를 준비 중인 소위 기획의 땅이었다. 그리고 몇 번의 답사를 통해 좋은 입지의 공간도 보고 왔고 계약에 대한 준비도 하였다. 그러던 중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신도시의 중심상가 지역에서 함께 간 동료들과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중 쇼윈도 뒤로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은 보게 되었다. 빠른 템포로 오가는 사람들과 젊음의 열기는 충분히 신도시다웠다. 대부분이 20~30대의 여성들과 젊은이들 ... 젊은 도시였다. 그런데 순간 그러한 빠름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빠른 도시의 흐름은 결국 내 몸을 맡기기에 너무 이질적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선택한 곳은 1996년에 입주한 30년이 된 허름한 아파트 상가로 이미 교회가 5번이상 거처 간 상가 2층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빠름이 아닌 느낌이 나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전재산 1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 11월 8일 가족끼리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다. 오전 11시, 순서지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영상도 다른 프로그램도 없었다. 단지 정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나갈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 정식으로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우들과 축하를 위해 찾아온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2층에서 1층 계단까지 앉고 서고 그렇게 1시간 예배가 진행되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행복은 잠시... 당일 저녁 나는 다가오는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1시간 쪽잠을 자고 개척 후 첫 새벽예배를 맞이했다.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난 그 해 3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평소처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교회로 출근하여 점심시간,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니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

“밥이 넘어가냐!”

평소 같으면 이게 무슨... 이라며 무시할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에 그 음성이 하늘의 음성임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리고 차려진 밥상을 뒤로한 채 바로 교회 안에 뒹굴고 있던 전도지와 전도용품들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전도하라”는 부름으로 분명히 들렸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때우고 있을 거냐는 하늘의 꾸지람이었고 밥값은 해야 한다는 일침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점심이면 1시간여 동안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지역에 주민들과 만나는 노방전도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 주일에도 변함없이 예배전 그날 주보와 전도용품을 들고 동네 상가를 한바퀴씩 돌았다. 그렇게 한 시간 돌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동네를 돌며 만난 이들이 이제는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다. 주일예배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며, 그렇게 전도된 이들이 현재 우리 다윗목교회 교우들이다.



초창기 황사마스크, 면봉, 물티슈, 견과류, 사탕, 화장지, 마스크팩 등 다양한 전도용품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사용되었다. 이후 전달의 도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의 큰 틀의 도구가 생긴 것이다. 그 하나는 “노방전도”를 통한 <지역심방>과 “공유공간”을 통한 <간접전도>였다.

교회 개척 후 5년이 되던 해, 하나님은 매일 만난 이들이 벗이 되고 성도가 되게 하시어 준비된 공간에 당신의 사람들로 채워주셨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교회 공간 이전을 기획하게 되었고 우리는 코로나펜데믹을 만났다. 그럼에도 교회이전은 추진되었다. 인원증가보다 더욱더 절실한 필요를 경험한 것이었다. 교회공간으로 얻어놓은 25평 밖에 안 되는 공간이지만 코로나 펜데믹으로 6개월여 문이 닫힌 채로 폐쇄되는 경험 때문이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전도를 위

해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공유공간”이었다. 작은 도서관을 기획하고 서울과 일산의 작은 도서관을 잘 하는 목사님을 찾아뵈었다. 필자보다 10년이상 아래 연배의 목사님들이었다. 한참 후배목사님이었지만 도서관목회로는 한참 앞서 있는 선배들이었다. 그리고 목회선배들에게 배웠다. 그리고 방법과 순서를 익힌 후 2020년 12월 드디어 “모두의 거실”이란 이름의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과 소통할 기회를 찾게 되었다. 그중 공간공유의 탁월한 선택은 옥상공간 개방이었다. 옥상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계단과 설비는 교회가 맡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 공유공간으로 마당이 필요했다.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보호받으며 BBQ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전도의 도구가 되었다.

전도에는 절대량이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반드시 뿌린만큼 거둔다는 원칙은 명확하게 적용된다.

초기 전도용품을 나눌 때는 10,000장 정도 돌리고 나면 1명 정도가 연락이 온다.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대략 산출해보면 약 100만원을 들여 준비한 전도용품을 나누고 나면 1명이 초대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8월에 한달간 운영된 물놀이장의 경우 프라이빗 수영장으로 오직 한가정씩 이용하게 했다. 철저히 도서관의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



방이었다. 그 최소 4명에서 많게는 5명의 사람들을 초대하게 된다. 수도세까지 포함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달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한달간 5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고 오히려 자신의 블로그 혹은 SNS에 교회 소문을 내주었다. 그렇게 전도가 되었다. 그리고 전도용품으로 나누어 주던 쓰레기 봉투와 물티슈를 받아가며 오히려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하였다. 산술계산이 빠른 분들은 계산이 될 듯하다. 이것이 득인지... 실인지...

그리고 모든 교회가 공감했듯이 <온라인교회>가 시작되었다. 사실 2016년 이후 매일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성도들과 카톡으로 나누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예배가 멈춘 2020년 6개월의 기간을 지켜준 버팀목이 되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이 생겼다. 온라인교회의 구체화였다. 이에 대한 깨달음은 2002년 월드컵을 보며 환호하던 대한민국 시민들이 온라인 방송을 보며 인형처럼 멍하게 앉아있는 비교사진을 보면서이다. 교회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구성의 최소단위로 여기며 시작했던 거룩한 습관의 연결고리였다. 곧 대면예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온라인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방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단톡방을 이용해 매일 아침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 오전 기도문과 기도공유 그리고 저녁의 삶의 적용이라는 매일의 경건훈련을 진행중에 있다. 시작할 즈음에 30여명으로 시작된 온라인 교회는 현재 60여명으로 확대되어 전라도 남원, 경기도 수원, 쿠바, 아이티, 호주 등의 다양한 지역 성도들과 교제 중이다.

전도는 공식이 있다. “전달”과 “초대” 그리고 “결신”이라는 순서다. 반드시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초대가 되고 초대가 되어야 결신이 일어난다. 이 공식은 절대불변이다. 그러나 전달의 용품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용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용품도 되지만 물놀이장, 캠핑장 등 부동의 자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간이 전도용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의 도구들은 사람들을 공간으로 초대한다. 그럼 이후 결신은? 이 부분

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여기부터는 우리 몫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다윗목교회를 그렇게 초대된 이들로 채우기 시작하셨다.

강요해서 만들어 놓은 등록교인은 진정한 등록교인은 아니다. 이 땅에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등록교인이 아닌 하늘나라 백성으로 등록된 교인을 만드는 것이기에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인 채우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 채우려고 전도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 전도가 된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단지 다양한 물품과 방식을 전달하고 초대할 뿐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된다. 공간을 통해서 혹은 전도용품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이 되어갔다. 그리고 상시 방문하며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 그들의 입에서 이런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동네 목사님”

나는 믿는다. 그러면 족하다. 개척교회 곧 지역교회가 가지게 될 최상의 이름이며 우리 동네 목사님이 가장 멋진 이름이다. 이 이름을 부여받는 순간 지역교회 목사로 임명장을 받은 것과 같으며 이제 하나님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필자의 경우 요즘도 종종 방문하는 불신자인 상가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 후 식사를 하며 종종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곤 한다. 그들의 ‘우리 동네 목사님’을 통해 지역심방을 받게 되고 나는 지역에 속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방하는 것이다. 지역심방, 곧 노방전도의 방식을 바르게 인정하면 모두가 충분히 역량 있는 ‘우리 동네 목사님’으로 거듭나는 도구가 되어줄 것임을 나는 믿는다. 이 모든 은혜가 점심시간을 통해 들려온 “밥이 넘어가냐?”며 일침을 주신 하늘의 음성이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도의 도구와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3. 비전과 전략(교회론과 목회철학)

- ▶ 교 회 론 : 하나님나라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 ▶ 목회철학 :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4. 교회의 사역

- ▶ 사역 정의 : 나의 사역은 (하나님나라에 거룩을 심는 것)이다.
- ▶ 핵심 사역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 1) (거룩한 시간) 거룩한 습관 세우기
 - 2) (거룩한 장소) 하나님나라와 지역공동체가 하나되게 하기
 - 3)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기

5.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 ▶ 초기 전도
 - 1) 매일 노방전도(점심시간을 통한 정기 노방전도)
 - 2) 정기 집회를 통한 간접전도(새벽기도회, 초청집회)
- ▶ 핵심멤버세우기
 - 1) 초기 새벽기도회 참석 교인
 - 2) 주일예배와 온라인/오프라인 전도교인

| 목표와 미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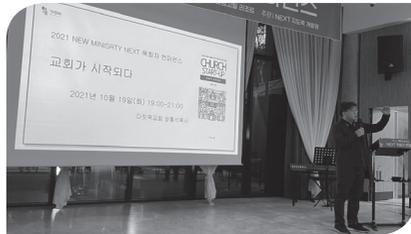
- 1) 지역교회사역 ‘지역교회 연구소’와 ‘도서출판 모두의 거실’을 기반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한다. 이에 다릿목교회의 부흥을 위해 지역 심방과 공유공간 그리고 온라인 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교회 주춧돌을 놓는 기초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사역으로 개척교회를 돕는 스티그마

세미나를 매월하여 그러한 경험들을 나눌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의 이야기를 출판할 예정이다.

- 2) **지역소통사역** 도서관 사역을 통해 지역과 소통할 예정이다. 바리스타 강사과정, 쿠킹클래스, 캘리그라피 강사과정 등 다양한 문화사역과 물놀이장, 캠핑장 개방으로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에 필요한 공간과 교회가 되고자 한다.
- 3) **외부사역확장**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사회(홀사모 선교회)와 아동복지시설 송죽원(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그리고 새터민사역을 통해 그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확보, 그리고 재정적 자립 등 실제적인 필요를 제공하며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사회 이정정 사모와 송죽원 이범석 이사장과 새터민 사역자 장월방 선교사와 협력 중이다.

|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제언, 하고 싶은 말 |

일상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유로 개척을 준비하거나 개척하고 목회 중인 이들에게 정기적인 노방전도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친구가 되기를 권면해 본다. 그렇게 생성된 친구들은 그들의 친구를 교회로 초대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이 되어줄 것을 나는 믿는다.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자기관리에 철저한 말씀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무리 견고한 바위도 한방울의 물방울이 구멍을 내듯이 낙숫물 효과를 믿고 오늘도 전도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반드시 부흥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종 임마누엘교회 _김영훈 목사

1. 교회 기본정보

세종 임마누엘교회는 2011년 2월에 개척 설립되었고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세종남지방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매주일 장년부 예배 인원은 100~120명, 교회학교는 50~60명 정도 출석하고 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나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 농촌교회에서 7년, 그 후 도시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여 3년 동안 사역했다. 그러한 사역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성전건축, 교육관 건축, 주택건축, 교회의 부흥과 성장,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과 목회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할렐루야!



교회 개척도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나는 부목사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 개척에 대한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개척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배당을 마련할 돈도 없었고, 교회 개척에 함께 참여할 사람도 없었다. 당장 기거할 주택조차 마련할 형편이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할만한 재정이 있느냐? 멤버가 준비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런 질문에 나는 ‘아니오.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뒤 개척할 예배당 보증금 4천만 원이 해결되었고 주택도 마련되었다.

나는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하게 개척을 시작하거나 여러 명의 개척 멤버들이 함께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신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개척을 시작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내적 고민과 갈등에 휩싸인다. 생각했던 대로 전도도 안 되고, 교



회가 성장하지도 않는다. 그럴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흔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그것이 큰 1. 착각임을 곧 깨닫게 된다. 나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거나 방문한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일은 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몇 달 출석하다가도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어떤 성도들은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늘어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개척을 시작해 목회를 하는 분이라면 이런 시기를 잘 넘겨야 하리라 본다. 때로는 이 기간이 짧게는 1년, 혹은 2년 그리고 3년이 될 수도 있다. 이 시간을 보내며 목회자가 의욕을 잃고 영적인 힘을 상실하면 목회는 점점 더 힘들어 진다.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 매주 나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를 위한 특별 행사를 진행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등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이 보이지도 않았다. 그땐 정말 마음에 크게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나고 새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매주일 새신자가 등록하기 시작하니 6개월 만에 40~5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은 계속되었고 예배당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세 번이나 이전하게 되었다. 비록 개척이 쉽지 않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주목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3. 비전과 전략(교회론과 목회철학)

교회 비전은 ‘세종시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 교회’이며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 번째는 영혼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구원을 항상 강조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는 제자훈련이다.

구원 받은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을 받는 성도,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4. 교회의 사역

▶ 사역 정의 : 나의 사역은 (복음 사역)이다.

▶ 핵심 사역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와 말씀훈련 / 변화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매일말씀 선포 훈련

두 번째, 목장 소그룹사역 / 영적 공동체성 회복, 국내의 선교지 후원
세 번째, 심방사역 / 기업심방 및 신앙상담

5.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교회를 개척할 때 동역할 멤버들이 먼저 준비 되어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개척 당시 함께 할 성도가 준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함께 매주 2~3회(화, 목, 금)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 앞에 나가 전도했다.



그리고 몇 가지 전도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개척 설립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자.

둘째, 새롭게 이사 왔거나 정착하지 못하여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자.

셋째, 믿음생활을 시작하고 하고 싶으나 결단하고 있지 못한 이들을 만나자.

넷째, 아직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전도한 결과 출석할 교회를 찾고 있던 2명의 성도와 처음 교회에 방문한 1명의 성도가 새가족으로 등록했다. 그 후로 소규모 전도대를 조직해 토요일마다 전도물품과 전도지를 갖고 매주 전도하였다. 물론 전도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꾸준히 전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6. 마치는 글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더구나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하지만 힘을 내기 바란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서울 은평빛의숲교회 _ 강민철 목사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2-7 / 홈페이지 : www.lfc.or.kr / 개척일 : 2019. 3. 10

1. 개척동기와 과정

나는 서울 광림교회에서 7년간 부교역자로 목회했다. 부교역자로 지내면서 단독목회를 기도하던 중, 개척에 대한 강한 확신과 소명을 받게 되었다. 교회 개척의 길이 열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다. 교회로 쓸 수 있는 상가자리를 아는 분을 통해 소개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곳은 일방통행 길에 좁은 골목 주택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에는 힘든 곳이었다. 응암역에서 15분을 걷고 좁은 골목길 빌라 사이에 가려진 건물을 찾아야만 하고, 주인의 반대로 교회 십자가도 달 수 없었다. 또 불과 200미터 앞에는 1천명규모의 장로교단의 대형교회가 있어서 교회 개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장소처럼 보였다.

교회건물 계약을 하기 전에 원래 3층은 영어학원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건



물주인과 영어학원 원장은 가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영어학원 원장이 갑자기 압진단을 받는 바람에 계약을 취소해 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회건물 계약을 마치고 난 며칠 후에 계약을 취소했던 원장이 다시 찾아와서 압진단이 오진으로 판정되어 다시 계약하면 안 되냐고 사정했다는 말을 건물 주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 건물을 개척자리로 쓰게 해주셨던 것이다.

개척을 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달 만에 신속히 이루어졌다. 개척을 결심했지만 건물을 임대할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결국 부모님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받아 겨우 전세금을 마련하여 건물을 계약하게 되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은평지방 실행부위원회에 개척요청을 하였지만, 개척멤버가 우리 가족 외에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처음에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악조건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실행부 위원들에게 전했고, 은평지방에 그 어떤 도움과 재정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개척을 승인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목회자인 나와 아내, 세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렸다. 아무도 오지 않는 예배당이었지만, 하나님은 첫 성도를 보내 주셨다. 교회 옆 반 지하 연립주택에 사시는 장로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정식 1호 등록성도였다.

교인 한명도 없이 시작한 교회가 개척 시작 후 6개월 만에 교인수 15명이 모였고, 개척을 시작한지 1년, 코로나19의 확산과 예배가 제한받는 상황에서도 총 교인 수 60명, 결산 8천7백만원(2020년 결산기준)의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2. 비전과 전략 : 지역사회에 영적인 공백을 찾아내라!

나의 개척전략은 주변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차별화된 사역을 하는 것이었다.

주변교회들을 리서치 해 본 결과 이 지역에서 두 가지 영적 공백을 발견하였는데, 첫째는 새벽기도가 없는 교회가 많았고, 두 번째는 특화된 교회학교 프로그램 하는 교회가 없었고,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았다. 이러한 영적공백이 있음을 발견하고, 개척 초기에 다음의 투트랙(Two Tracks) 전략을 구상하고 시행하였다.

1) 호렙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개척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날마다 건물의 불을 켜고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임을 알렸다. 부목사 시절에 새벽예배를 드렸던 습관과 목회적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새벽예배에 나온 첫 성도는 구강암을 앓고 계시는 분이셨다.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입 주변에 암이 크게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다. 2주 후에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새벽예배에 참여하신 것이었다. 입과 얼굴 절반가량을 절개해서 흉측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그분을 위해 정성껏 새벽마다 안수기도 해드렸다. 기도를 시작하고 2주후에 수술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 보니 암 덩어리가 작아져서 안면근육일부와 얼굴뼈 작은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으면 나중에는 정상인처럼 얼굴이 회복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새벽기도회에서 응답을 받고 치유를 경험한 그 성도님은 그 즉시 딸과 사위 가족도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새벽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기도 응답도 잘 이루어지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타 교회 성도들까지도 자신들의 기도제목을 우리 교회에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 응답과 치유, 기적의 좋은 흐름을 타고 6월 첫 주 성령강림절이 시작되는 때에, 호렙산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광림교회에서 부목사시절 단독목회를 하면 목숨 걸고 해보고 싶었던 것이 40일 호렙산 특별새벽기도회였다. 광림교회에서의 7년 동안 40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돌파, 재정의 축복, 기도의 응답을 여러 번 경험하였다. 교인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때에, 새벽 기도에만 25명이 참여하였고, 40일 개근한 성도도 8명이나 나오게 되었다. 이때 성령체험을 비롯



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도 경험했다. 장애인단을 받으신 분도 장애인단이 내려가서 정상인의 수준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셨다. 1000: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에 당첨되는 성도분도 계셨고, 집 문제로 수년간 고민했던 문제가 새벽기도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되어 해결되신 분들도 있었다. 응답과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은 지금도 매년 6월에 있는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기도훈련과 제자훈련의 기회로 삼았고, 새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문 40편을 책자로 제작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여유 있게 100권을 제작한 책이 단 일주일 만에 절판되어 새 교재를 찍어야 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호렙산 기도회가 끝난 후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성도들의 눈빛과 영적상태는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히 달라졌다. 우리 교회의 성장은 호렙산 새벽기도 전후로 나뉘는 만큼 새벽기도회는 교회성장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리는 가운데 영적전쟁도 있었다. 이웃 집 사람이 시끄럽다며 강단에 난입하기도 하였고, 새벽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방해도 받았다. 정부의 예배제한 조치를 하는 등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렙산 기도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주일학교

개척 초기에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학생이 한명도 없는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여름성경학교 광고를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주일학교 유일한 학생이라곤 나의 아들 세 명 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명도 오지 않을지라도 내 아이들에게만 큼은 최고의 여름성경학교를 보내게 해주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행사를 계획하였다. 주변 교회 중에서 영유아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영유아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름성경학교를 따로 개설하였다. 모든 것을 나와 내 아내가 밤을 세우면서까지 준비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 주셨다. 그 결과 영유아를 위한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몇 명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찾아 오셨다. 이 프로그램은 더운 여름에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부모와 함께하는 컨셉으로 진행하여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었고, 그 결과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한 부모들 중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수요예배와 주일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겨났다.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교회학교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교육전도사를 청빙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학교를 도맡아 책임지게 하였다. 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구입하여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해질 때에도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주일학교 예배를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하였다. 코로나 확산 속에도 주



일학교 예배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교회 주변에는 부모가 맞벌이로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 앞으로는 이 아이들을 전도의 중점 타겟(Main Target)으로 정하고, 영어주일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영어주일학교의 목적은 영어로 말씀을 암송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언어 능력을 길러 복음 전도자로 양성함과 동시에 제자양육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한다.

3. 코로나19를 돌파하는 전략

개척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칫 성장의 흐름이 끊길 수 있는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했다. 코로나 확산은 개척 후 새로 등록된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 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위기 속에서 내면의 영적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음의 전략을 가지고 돌파해보았다.

1) 예배자 훈련, 가정교회의 활성화

신천지 대구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예배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예배와 기도와 같은 경건생활은 흐름이 끊어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참으로 어렵다. 경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였다. 기존의 영상설비를 실시간 방송 시스템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였다. 이미 개척하기 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기에, 신속하게 비대면 예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태도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예배 전에 “공간정결기도문”을 직접 읽으며 비대면 예배 매뉴얼화 해서 가정예배를 훈련하였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주일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1부는 청년과 청장년들을 위한 열린 찬양예배, 2부 예배는 기존의 전통적 예전을 가진 예배로 차별화를 두었다. 그리고 두 번의 주일 예배는 소수 인원이 모이지만 예배 담당자들을 세워 직접 예배를 섬기도록 하였다. 비대면 예배촬영으로 모이면서 각자 맡은 부분들을 연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코로나 19는 나태한 성도들에게는 좋은 핑계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제자로 훈련되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훈련의 기회인 것이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훈련이 잘 되어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배당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

속회와 소그룹 모임도 제한을 받았지만, 오히려 은평빛의숲교회는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았다. 가정교회 세우기 운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공백기 없이 예배와 경건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이전과 비교해 보면 경건 생활을 하는데 더 불편한 점이 더 많아졌지만, 도리어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2) 적극적인 투자와 헌신의 모범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목회자가 먼저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투자하였다. 냉난방설비 수리, 교회차량구입, 방송 및 영상, 악기구입 등, 교회와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재정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였다. 헌신에는 목회자 가정이 먼저 앞장서기로 하였다. 감사하게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변화를 시도하다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재정의 축복을 부어 주셨다.

3) 중보기도자 양성훈련

국가적 재난상황과 한국교회의 위기, 이 때야 말로 중보기도자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제 1기 중보기도자 양성학교를 개설하였고, 수료

한 모든 이들에게 중보기도의 책임을 부여했다.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중보기도로 쌓아왔던 영적에너지가 폭발하여 교회의 큰 부흥의 역동성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4. 지금 나의 목회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Vision)

지금 나의 목회는 (현재진행형)이다. 작은 교회이지만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보인다.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그려본다.

1. 현대적 감각으로 복음을 재해석하여 생명 복음 콘텐츠를 생산하는 교회
2. 언택트 시대에 세상과 영원의 세계를 이어주는 플랫폼 교회로의 전환
3. 다음세대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빛의 군사들로 세우는 훈련소 교회

5. 마치는 글

지난날의 개척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할 뿐이다.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일꾼도 없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정의 자립, 교회의 성장, 성도의 변화, 기도응답, 초자연적인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면 분명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개척을 통해 배웠다. 그래서 나는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싶다. “현실에 움츠러들지 않고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더 도전하라!” 현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인 요구와 지역사회의 영적인 공백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위례 주는사랑교회 _심기도 목사

1. 주는사랑교회

주는사랑교회(중앙연회 성남지방/담임목사:심기도)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 성남, 하남지역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세워진 신도시로 인구는 약11만명, 약45,000세대(21.10.31기준)이다.

주는사랑교회는 위례신도시 중심인 위례중앙타워 8층의 일부인 71평을 1억 원의 보증금과 월 450만 원에 계약하며 시작했다. 재정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중앙타워를 개척 장소로 결정한 이유는 4가지이다.

첫째는 지역을 조사하면서 40대 이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한 시간 때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년들의 예배공간과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배 공간,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자모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둘째, 위례주민이라면 잘 알고 있는 랜드마크 같은 중앙타워(위례주민들에게 일명 ‘중타’라고 불리는 건물), 위례지역 어디서든 차로 5분이면 올 수 있는 위례중앙광장에 위치해 있다.

셋째, 차량으로 이동하는 세대들이 많아서 주차공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했다. 건물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지하2층~6층까지 총 700여 대정도가 된다.

넷째, 앞서 반복해서 소개했듯이 교회가 속해있는 중앙타워건물 앞에는 5,000평 정도의 넓은 중앙광장(중앙공원)과 주변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 주말, 주중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2018년 8월 첫 예배를 드렸다. 교인이라고는 우리 가족 4명(목사, 사모, 자녀 2명)이 전부였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의식적으로 간과한 것이 있다면 개척 멤버였다. 함께 준비하며 시작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든든하겠지만, 우리에게겐 그마저도 없었다. 계산할 수가 없었다. 70평이 되는 드넓은 예배당에 4명이 앉아(설교자인 목사마저 빼면 예배당 의자에 3명이 전부였다.) 첫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실감했다. ‘이제 시작이다’ 돌이켜보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기에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벙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이 여기셨는지도 모를 일이다.

1년 후 2019년 9월에는 대략 60명(장년 40명, 교회학교 2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2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현재는 50~55명(장년 40명, 교회학교 15명)의 예배자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2. 개척 시작과 과정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가장 애쓴 것이 있다면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교회 전단지를 제작하여 나눠준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곳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정보는 주어야 할 것 아닌가.

2018년 8월 여름은 정말 더웠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땀이 흘렀고, 눈물도 따라 흘렀다. 마음이 뜨거워서 더웠는지 도대체 그 여름은 왜 그렇게 더웠는지 그 비밀은 1년이 흐른 후에야 알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뉴스를 볼 겨를이 없어 우리는 그 다음해인 2019년 기상보도를 통해 작년 여름이 한국 기상관측 역사상 21세기 최고의 기록적인 폭염이었다는 이야기를 우습게도 1년이 흐른 뒤 그제서야 듣게 되었다.

전단지 3만장을 제작했다. 실 틈 없이 전단지를 접었고, 실 틈 없이 전단지를 돌렸다. 아니 뿌렸다. 주변 아파트에는 “신도시의 하루는 짜라시와 함께”라는 우스운 말이 있을 정도로 각종 전단지가 집집마다 홍수를 이룬다고 했다. 그 전단지의 대부분이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돌린 3만장의 전단지 중 단 한 장 정도는 누군가의 삶의 한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도 무더웠던 2018년 8월 여름을 가족 모두가 피땀눈물을 흘리며 후회 없이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7살, 9살이 되는 두 아이들과 함께 전단지를 돌리던 날이었다. 작은 손으로 고이 접은 전단지를 아파트 우편함에 한집한집 정성스레 넣고 돌아오던 길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주는사랑교회지요? 우편함마다 교회 전단지를 넣어뒀는데, 이거 다 회수해 가세요. 지금 아파트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회수중인데, 날이 너무 더워서 더 이상 못하겠으니, 교회에서 책임지고 다시 회수해 가세요.”

지치고 지쳐 돌아오던 길에 힘들게 넣은 전단지를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하

니, 아이들의 얼굴에 좌절과 실망이 역력했다. 그 날은 그 여름날 중에서도 유난히 더웠다. 다시 아파트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회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니, 전단지지를 넣는 대신에 홍보비를 지불해야 한단다. 전단지지를 제작하는 데에도 디자인이며, 인쇄비용이 만만찮게 들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여하튼 이러저러 3만장의 전단지지를 돌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전단지지를 보고 왔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전단지지를 받고 온 사람은 없었지만, 코로나로 방문자가 뜸해진 요즘과 비교해보면 매주 방문자가 많이 왔다. 우리의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또 애쓴 것이 있다면 제자훈련(기초반, 제자반, 사역반)이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아서, 늘 좋은 교회에 대한 갈증이 강했다. 그러다보니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품게 되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평신도를 예수 닮은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만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확신을 했다.

그래서 개척 후 처음 등록된 여자2명, 남자1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자훈련에 애를 쓰고 있다.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닮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훈련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맺혀졌다. 제자훈련을 마친 이들이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지고, 교회 봉사자로 세워지면서 목회의 동역자들이 되었다.

3. 교회비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비전을 놓고 기도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위례 지역은 어떤 곳인가?”, “지역 주민

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들의 갈증의 필요는 무엇인가?”, “기존 교회들이 이 갈증과 요구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젊은 세대들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목사인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7가지 비전을 세우게 됐다. 이 일곱 가지 교회비전은 성도들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주보앞면에 적어 놓았다.

- ①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② 선교하는 교회 ③ 제자 세우는 교회 ④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⑤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⑥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⑦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틀에 박혀 있는 예배를 벗어나 매주 예배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국내와 국외 두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새생명축제를 통해 전도를 한다.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직분과 혜택을 준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한마음축제, 전교인음식파티를 하고 있다. 가정의 치유를 위해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음세대를 일



으키기 위해서 개척 초기부터 ‘내가 사례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교육하는 일에 먼저 쓰자’ 그래서 개척 출발부터 교육전도사님 두 분을 모셨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드럼교실, 기타교실, 드로잉교실, 플라워레슨을 하고 있다.

4. 하고 싶은 말

그리도 더웠다면 그 여름, 가족모두가 병이 나도록 돌렸던 3만장의 전단지 중 한 장을 받아 나오신 성도분이 계시고, 1년여를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던 집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등록을 하시며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 주셨고, 목사님만 보면 엄지를 치켜세우며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응원해주는 교회학교 학생이 있고, 거절할 수 없어 한번 왔던 예배의 자리를 어찌다보니 지금까지 오고 있다며 한번도 자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고 함께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이제는 존경과 섬김을 받으시며 교회의 최전방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조금은 편안한 길을 목전에 두셨음에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은퇴하시자마자 개척교회라는 광야로 다시금 새 발을 내딛고 지금도 눈물로 하나님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신실한 장로님이 계시고, 개척교회라서 많은 사례로 대우해 주지 못함에도 열심히 섬겨주신 동역자들이 계시니 나는 참으로 행복한 개척교회 목사이다.

지난 시간,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기도할 것뿐이었다.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그래도 개척교회, 보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다. ‘이 위례지역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나와 보라’할 만큼 부르짖었고, ‘과연 우리의 이 개척교회 목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오리무중일 때도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

나님 은혜로 부흥 성장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는사랑교회는 기존성도가 한사람도 없이 심기도 목사와 그 가족들의 예배로 시작되었고, 지금 주일예배인원은 온오프라인 평균 50명 정도가 된다. 우리교회의 큰 특징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신자이며, 그들 중에서는 긴 신앙의 공백기를 둔 연약한 성도들과 여러 가지 상처들로 얼룩진 모태신앙 성도들이 많다보니, 우리교회의 목회의 핵심은 사랑과 긍휼, 회복과 기다림이다.

‘얼마나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떤 성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치중해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외부에서 비춰지는 성장보다는, 내부를 먼저 돌보고 예수 닮은 제자를 세우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 기본적인지만 쉽지 않는 길을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보려고 한다.

서울 꿈의교회 _ 신동훈 목사

한번은 “비빔밥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적이 있다. ‘유대인이 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3:28)라는 말씀을 “비빔밥”으로 해석해 적용했었다. ‘양파나 고사리나 당근이나 버섯이나 다 고추장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꿈의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의 독특한 맛을 내는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 꿈의교회는 그런 교회다.

1. 꿈의교회는?

꿈의교회는 서울연희 마포지방에 소속된 교회로, 마포 경의선 숲길(공덕)에 인접해 있다. 2014년부터 신동훈 목사(당시 전도사)가 부임해 현재까지 지역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3040 젊은 부부와 아이들의 비율이 높으나, 전 연령 층이 다양하게 구성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다. 현재 상가 2층 건물에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임대 사용 중이다.

2. 부담하게 된 과정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담임자의 유학으로 공석이 된 꿈의교회에 부임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얼떨결에 목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전도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 왜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는지 너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꿈의교회가 왜 필요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누군가 개척에 대한 확고한 소명과 세밀한 전략없이 단순한 열정으로 개척 교회를 시작한다면,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며 말리고 싶다. 개척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모두가 준비된 상태로 개척을 시작한다면 그것도 전부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저의 목회는 후자에 가까웠다. 분명한 것은, 가보면 알게 되고, 걷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말이다.

3. 비전과 전략

1) 우선 내부를 유심이 들여다보았다.

꿈의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의 나이, 수준, 신앙을 살펴보니, “서울”, “중산층”, “젊은 부부”, “자녀”, “꿈” 등의 키워드가 나왔다. 이를 놓고 어떤 전략을 세울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



을 떠올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All Nations)”을 구원하기 위해, 이 스라엘을 먼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출애굽기 19:6)으로 부르셨다. 이 장면이 꿈의교회와 오버랩(overlap) 되었다.

꿈의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자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쳐 있었다. 저의 과제는 그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열정과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 흔한, 거리전도와 초청예배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예배하고, 교제하고, 친교만 했다. 그러자 점차 신앙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펼쳐나간 사역들은 [4. 꿈의교회 사역]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겠다.)

2) 다음은 외부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교회 맞은편 카페에 앉아 온종일 교회 건물을 바라보았다. 누가 교회에 눈길을 주는지 엿탐(?)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지만, 막상 교회는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아도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교회에는 들어오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교회를 브랜딩하기로 마음먹었다. 철학을 담아 교회 로고를 만들고, 시그니처 컬러(녹색)를 정해 통일감을 주었다. 각종 디자인과 현수막, 출력물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다. 디테일이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회 창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과정을 직접 그려 우리 교회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다. 또, 전도지는 고급용지로 두껍게 만들어 관심있는 사람에게만 정성스



럽게 전달했다. 교회 이름이 적힌 종이가 공원에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전도용품은 흔한 물티슈 대신에 장미꽃을 나눴다. 일종의 차별화, 고급화 전략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꿈의교회는 사람들에게 색다르고, 감각적인 교회로 비춰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꿈의교회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3) 작은 교회가 한 가지 영역에만 특화된 것을 피하려 했다.

보통 규모가 작은 교회는 몇 가지 사역에 치우치고, 편중화된 경향이 많다. 모두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에 어쩔수 없는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저는 작지만 모든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즉 단지 규모가 작을 뿐, 부족함은 없는 교회로 세워가고 싶었다. 그렇게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균형있는 목회와 사역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새 성도들의 자긍심과 기쁨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작은 교회는 선교받는 교회이지 결코 선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꿈의교회는 매년 규모있는 선교 사역을 개최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한인청소년을 위한 영성캠프 ‘꿈의축제’를 통해, 캄보디아 MK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선교사역(스태프 20명, 선교사 10명, 학생 120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섬김에 필요한 스태프와 재정은 모집을 통해 충당하고, 꿈의교회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분명 작은 교회도 충분히 선교사역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관건은 교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아닐까 생각한다.

4. 꿈의 교회의 사역

꿈의교회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3가지 방향성을 놓고, 사역을 펼쳐갔다.

1)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은 꿈의교회에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사역의 방향성을 맞추게 되었다. 더불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클래스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또, 매달 셋째 주일은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했다.

- 꾸옹미술교실: 주일 오후 미술수업
- 드림스쿨: 토요일 영어/활동 모임

2)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꿈의교회는 작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 주일에 배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채우는 훈련이 필요했다.

- 말씀과 삶 :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을 각자의 삶과 연결
- 드림 아카데미 : 봄/가을 성경공부
- 굿모닝 말씀/굿나잇 기도 :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로 채움
- 다시 복음 앞에 : 복음에 대한 기본 과정 4주간 진행

3)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삶

꿈의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각자의 자리로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한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나눈다.

- 나눔예배
- 거리전도
- 성탄절 찬양 & 꼬마싼타
- 김장나눔 등

5. 교회 이전

개척교회가 마주한 숙명 중 하나는, 건물주가 나가라면 언제든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그래서 꿈의교회는 2018년 3월, 교회 예배당이 위치한 건물이 매매

되며 쫓겨나다시피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다. 매일같이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곳곳을 둘러봤다. 하지만 마포 어디에도 교회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심지어 살롬빌딩, 에텐상가 등에서도 교회자리로는 불가하다는 단호한 대답을 들었다. 다른 세입자들이 싫어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꿈의교회는 고심 끝에, 과거 창고로 사용되어 전혀 관리가 안된 낡은 건물에 들어가 그곳을 새롭게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교회를 받아주는 공간 이기에 이곳 밖에 없었고, 60평에 200만원(월)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가 마음에 들었다. 넉넉지 않은 재정적 상황에서 저와 성도들은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무더운 여름을 땀 흘린 끝에, 10개월 만에 교회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아무런 기술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시멘트를 붓고, 바닥을 깔고, 페인트칠을 했다.

감사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낙심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었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이 자라났다. 아이들까지도 함께 와서 청소하면서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직접 꾸민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은혜가 되었다. 오히려,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된 것이다.



6. 마치며

지난 8년을 돌아보니, 성도들과의 기적 같은 첫 만남이 생각한다. ‘낮선 예배당에 아이 셋을 데리고 불쑥 들어온 가정’, ‘감리교 간판을 보고 찾아와 한 달 예배하시곤, “왜 등록하라고 안 하나”며 물으신 집사님’, ‘형이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내가 돕겠다며 따라나선 고향 동생’,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스카우트해 온 반주자’ 등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맛집이라고 하면, 그 집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레시피라고 하면, 차별화된 비법이 담겨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다. 재료만 신선하고 좋다면, 소스를 만들고 맛을 내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속한 공동체를 잘 파악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수준은 어떠한지, 무엇을 꿈꾸는지. 또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언제 신나는지, 누가 곁에 있는지 말이다. 그럼 어떻게 간을 하고, 소스를 만들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색이 있고 곁이 있기에 그렇게 버무려진 요리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색다른 맛이 날 것이다.

1. 교회 기본정보

▶ 주소 : 대전 유성구 지족북로78 F층 주빛교회

▶ 지역 상황 : 대전 유성구 지족동은 1984년 7월 대전시 유성 출장소 관할이 되었고, 1989년 1월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족동이 되었다. 1995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이 되어 행정동인 온천1동 관할 아래 놓였다. 현재 인구수는 2.5만명이 모이는 지역으로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2년여 간의 제자리 걸음, 혹 교회가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제 주빛교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빛교회의 교인 수는 61명, 전 세대가 고루고루 세워져 가는 교회다.
2021년 결산은 1억4천만 원 정도이다.

2. 개척동기와 과정

나는 남부연회 대전유성북지방 하늘정원교회에서 3년여간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그이후 대전북지방의 하늘빛교회에서 아동부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련목회자 사역을 감당하며 목사안수를 받으려 했다. 2011년 9월부터 부임해 사역했는데, 하늘빛교회(구 신탄제일교회)는 부흥해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1,500평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옆에서 목격했다. 이후 저에게 선택지가 생겼다. 그것은 제주도에 단독 임지가 난 것이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강력한 반대로 갈 수 없었다.

낙담하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지역도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 너무도 힘듭니다.”

그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가까운 교회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권면이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던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곳은 작고 아담하지만 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였다. 한 여성분이 앉아 책을 읽고 계셨고 우리 부부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 들어간 저희를 경계하던 그 분께서 갑자기 자신의 사역이야기를 나눠주며 저희에게 간증을 하셨다. 그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실례지만 목회자이신지요? 비전을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의 사역도 귀하지만, 개척을 하고픈 마음,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픈 마음을 그 분께 진솔하게 나누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도사님, 가까운 곳에서 개척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의 마음을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모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담임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의 허락을 받은 후 2013년 2월 16일 개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개척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 9년여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빚어가셨고,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저를 직면하게도 하시며 많은 고난과 영광의 일들을 경험하게도 하셨다. 한번은 개척을 선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저희 처



남의 둘째 아이의 ‘암’ 소식이였다. 태어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염색체 한 쌍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두 눈에 암이 퍼져가고 있다는 소식이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로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 이후 장인, 장모님과 함께 “예혼이를 위한 40일 새벽기도회”를 하자고 선포하고 바로 기도를 시작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여일이 진행되던 시기에 하나님은 제게 “내가 예혼이를 데려 가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40일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어찌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원망의 기도를 드리며 절망하는 그 날, 저녁에는 예혼이와 성도님(치남택)을 만나 저녁심방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필 그 날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는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는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제게 “내가 예혼이를 데려가겠다.”라며 이 사실을 성도님께 알리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데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분명 엄청난 절망과 좌절,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낼게 분명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나는 참다못해 성도님께 이렇게 이야기 했다. “성도님, 혹시 예혼이의 최악의 상황을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자 성도님은,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예혼이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 되었다”며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뻐 찬송하며 “성도님, 예혼이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혼이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라며 선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주빛교회의 첫 번째 큰 간증으로 예혼이는 지난 10년간 건강히 자라고 있으며 지금은 암이 다 고쳐졌고, 눈도 다시 보게 되었고, 귀도 듣게 되는 기적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나는 목회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까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

었다.

3. 비전과 전략

주빛교회가 개척되고 6개월 되었을 때, 20명까지 모이던 교회가 한 주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어 단 위에서 끼이끼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교회의 비전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2:4)

그 구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는 구절에 동의가 되었는데, ‘진리를 아는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그때 처음 보았다. 교회의 무너짐이 일어날 때 내 탓보다 남 탓을 하던 제게 저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주빛교회 담임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너무 준비없이 개척하고 말씀에 대한 능력, 진리를 전할 만한 담대함이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주빛교회”를 선포하고, 4가지 비전 설정을 선언하게 되었다.

1) 기도용사를 세우는 교회 2)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 3) 아이들, 성도들의 인생가치를 세우는 교회 4)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이와 같이 선포하며 함께 있던 성도들과 끊임없이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나는 7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비전을 말로만 선포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2018년 겨울이 될 때 쯤 기도 하는 나에게 주님이 다시금 말씀해 주셨다.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이 있지 않냐”며 비전의 기도를 이어 가도록 용기와 능력을 부여 주셨다. 그 때부터 다시금 기도하기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소통 기도회와 각종 기도회 운영”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코로나가 발생되어진 시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적인 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이웃, 자연, 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7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지금도 필요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또한 비대면 ZOOM으로 8주간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나만의 목회 특징과 강점은 비전제시와 관계성이다. 나 개인으로서의 사역만 비전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성도들, 선교회, 학회, 주변 개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제 강점이다.

2017년 깨달음 선교회를 시작으로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학회를 창

설해 각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전도사님들의 마음을 돌보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Eternal Life Movement 개척운동 선교회를 창설해 2022년도 2개의 교회 개척을 하고자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의 도전을 함께 나누고 있다.

4. 교회의 사역

▶ 사역 정의 : 나의 사역은 영적 치유, 회복되는 병원 사역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 5:31~32)

교회는 아픈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곳이며, 그들이 주님을 온전한 구주로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목회자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성도들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 핵심사역 3가지

1) 목회자를 세우고 섬기는 교회

현재 교회에서 간사 사역자와 선교회, 학회 등에서 목회자들의 훈련과 사역 감당을 돕고 있다.

2) 가정회복운동을 감당하는 교회

목회자 가정부터 온전케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3)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5.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내가 다시 개척을 하게 된다면, 저의 확실한 교회론과 목회철학을 녹여낸 파일을 준비하여서 알고 있는 관계성을 총동원하여 선교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함께 함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이는 물질로 후원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독려할 것이다.

6. 마치는 글

개척을 경험하면서, 개척 사역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개척하는 목회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려 한다.



▶ 개척 목회자들을 위한 제언 :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다. 절대 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님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그 은혜를 경험케 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도록 하겠다.

▶ 하고 싶은 말 :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하다보면 언젠가는 주님의 기름부으심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끝없는 실패와 실수, 실족 끝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한다.

의정부 예수소망교회 _고상원 목사

1. 의정부 예수소망교회

의정부에 위치한 예수소망교회는 2011년 3월 13일 의정부1동 허름한 건물 지하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고, 2대 담임자가 2층으로 교회를 이전했으며 2016년 5월 제가 3대 담임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2. 개척동기와 과정

나는 성남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였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련목회자가 되기 위해 시험을 봤고 합격까지 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에 한 문제를 컨닝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회개 기도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어 이대로 진급하고 안수를 받는다면 어떻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즉 이대로 만약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생각에 과감히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아내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고, 유기성 담임목사님게도 솔



직하게 말씀드리고 진급을 포기하였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의정부 예수소망교회로 인도하셨다.

전임 목사님께서서는 남자 청소년들을 전도하여 양육하고 함께 예배했으나 내가 부임할 당시에는 모두 군대를 가고 주일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매주 약 250여명의 청소년과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하다가 이제는 아내와 둘이 막 지난 딸과 함께 셋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3. 비전과 전략

너무나 갑작스런 인도하심에 어떤 준비도 없이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선교사가 저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며 준비해왔는데, 국내에서 단독목회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기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독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기에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먼저 단독목회를 시작한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목회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조언과 기도를 부탁드렸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과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초석이라 생각된다. 동시에 많은 걱정과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요즘 상가교회는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이었다. 즉 노방전도해서 새가족이 상가교회에 등록하는 일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저도 너무나 공감되고 동의되는 말들이었다.

교회가 위치한 의정부1동은 매우 특별한 지역이었다. 길 건너에는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뒤로는 매우 낙후된 주거지역이 위치했다. 유동인구는 많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인들이었으며, 지역 주민들은 연세가 많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중 감사했던 것은 낙심과 좌절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된 점이다. 그 소망은 예수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임 담임자들을 통해 의정부1동에 예수소망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으며 하나님나라를 세wig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다. 동시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는 구절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겠다는 확신과 함께 나의 목회와 조금은 미흡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다.

목회 계획을 세우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힘을 빼는 일이었다. 예수소망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할까?’였다. 그러나 예수소망교회는 고상원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엇을 할까?’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로 생각이 바뀌지게 되었다.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예수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며, 그것이 목회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결단을 갖게 되었다.

4. 교회의 사역 -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처음 예수소망교회를 소개받고 교회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부임 후에 ‘우리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면 좋을까?’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문득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있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이 고백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교회였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게 새롭게 주신 계명이기도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정했다.

5. 예배와 양육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수소망 교회는 전세대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다.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다. 또한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도 쉽게 예배 안으로 들어오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단어 하나도 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했다. 그리고 일대일 양육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도록 힘쓰고 있다.

6. 전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전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대상자가 바뀌었다. 그 대상자에 맞춰서 전도지와 전도물품을 준비하였다. 전도지와 전도물품은 최대한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자 사람들이 쉽게 버리지 않고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서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전도는 말 그대로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다. 교회로 인도하기 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썼다. 전도할 때 고정멘트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였다. 전도를 나가 보면 알겠지만 전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받기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억지로 전도지를 쥐어주는 것보다 축복의 한마디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된다. 그런 분들에게는 전체적인 복음 메시지를 전해 드렸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긴 시간동안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영접하시는 분들도 만났다.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이것을 목적으로 전도를 하였다면 상당히 큰 좌절로 전도가 끝났을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전도의 수고와 비교하면 너무나 작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도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였다.

비록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고, 다른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7. 다음세대

2017년 3월,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다.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분식집에 무턱대고 찾아가 교회를 소개하고 제휴를 맺어달라고 요청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쿠폰을 나눠주면 분식점에서 500원짜리 음식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을 당일에 결산하겠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하루에 40장 한정 쿠폰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매



주 목요일 전도를 나가면 아이들은 정문에서부터 “아저씨~”를 외치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학교 앞 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닌텐도와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컵라면과 간식들을 잔뜩 사냈다. 전도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보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형편의 아이들도 접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먹고 놀이의 장을 마련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주중에도 교회에 오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도를 시작할 때는 교회에 교회학교 예배가 없었다. 전도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학교 예배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017년 4월 16일 부활주일, 첫 교회학교 예배를 드렸다. 무려 9명의 아이들이 예배에 나왔다. 이 아이들이 더 귀한 것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주일에 스스로 일어나 준비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예배하러 교회에 나온 것이다. 이후에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록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중에 세례 받는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교회학교 예배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었으며, 특별히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에서 잠을 자며 아이들을 함께 섬겨준 신학생 전도사님들의 헌신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코로나로 부모님들이 반대하여 아이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못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다시금 회복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8. 이웃사랑

지난 2020년 5월 교회가 있던 상가건물이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쫓겨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인도해 주셨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주심을 경험하고는 예수소망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여 주신 영혼들이 많았다. 특별히 의정부라는 지역에는 결손가정들이 많았다.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 아이들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깨닫게 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다.



기도하던 중에 2021년 “제이하트”라는 선교단체를 세우게 되었다. 이웃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다.

‘제이하트’는 겉으로는 복지 사역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명으로 생명을 살린다”라는 슬로건처럼 오직 예수 생명이 한 영혼의 생명을 살어나게 할 것임을 믿고, 돌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 후원에 의존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일 년 동안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사랑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가정과 한 명의 청년이 주일예배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에는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를 거쳐 간 아이들이 보호 종료로 되었을 때를 준비하려는 계획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20대를 잘 준비하여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과 영적인 돌봄을 하는 단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9. 마치는 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저 또한 많이 배우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 사람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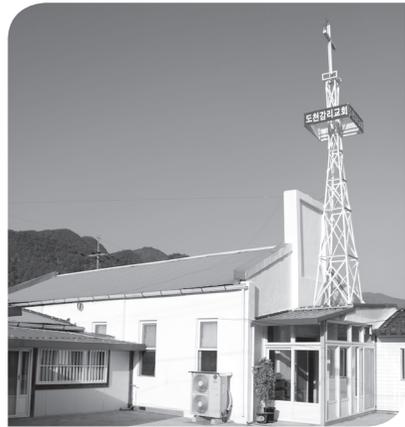
고 의지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분들을 전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을 전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백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중이다. 크레파스를 잡고 있는 나의 손을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고 그려주시길 구하고 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평창 도천교회 _ 김진호 목사

겨울을 알리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청년 심방을 마치고 광안대교를 지나는 데, ‘착잡기에 마른오징어를 넣고 돌리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사실 그 전부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갈증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한 영혼이 있는 곳이어도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정을 다해 돌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다. 교회의 규모(성도 수, 재정)와 위치(도시, 시골)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내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빨리 회복하고 싶었다. 이듬해 4월, 나는 강원도 영월의 작은 산골 예배당에 부임하였다.

도천교회는 48년 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장로교 목사가 가정을 예배처소 삼아 도천리를 품고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 한 분이 목사의 기도로 병이 낫게 되자 200평 부지를 헌물 하였고, 그곳에 도천충성교회가 세워졌다. 몇 해가 지나 감리교회 목사가 부임하였





고, 감리교재단에 편입하여 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도천리/도원리의 복음화에 앞장섰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린 토속 신앙과 불교의 영향으로 많은 박해를 받아 왔다. 또한 신앙 1세대들의 소천(召天)과 신앙 2세대들의 도시 전출(轉出)은 교회의 낙심과 아픔이 되었다.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노(老)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도천교회를 지켜주셨다.

부임해 보니, 80대 할머니 네 분, 90대 할아버지 한 분의 성도가 전부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일거리가 있으면 주일에도 품을 팔아 삶을 받을 정도로 예배 성수에 대해 무지했다. 이런 성도들에게 막무가내로 예배 성수를 강요했으니, 탈이 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다. 그 일로 할머니 성도 두 분이 석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다. 다섯 명 중 두 명의 성도가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다. 말 그대로 반 토막이 났다. 이렇게 부임 첫 해부터 큰 패배를 맛보았다.

하지만 이 일은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기회가 되었다. 신앙의 훈련이 하나도 되지 않은 성도들을 새신자로 생각하고, 부교역자 시절에 새가족을 양육했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교재로 전체 양육훈련을 시작하였다.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 말씀에 흠뻑 젖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두 분 모두가 예배 성수에 관한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다. 예배 성수에 관한 이

야기가 하나 있어서 나누고자 한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제일 연장자는 93세인 할머니다. 가장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할머니는 두 다리가 불편해 양손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힘겹게 예배당을 찾으신다. 불편한 몸이지만 예배에 빠지시는 법이 없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실내 지팡이를 짚고 맨 앞자리까지 오셔서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으신다. 내 걸음으로는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지만, 양손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오시는 동안 이미 턱 끝까지 숨이 차 있다. 너무 힘들어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렸다. “집사님 앞까지 걸어오시기 힘드시면 뒷자리 앉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목사님, 앞자리 가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며 우리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서 “집사님 감사해요”라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자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목사님께 칭찬받으려고 예배 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 나만 그날의 말씀 못 듣는 게 되니 그게 너무 서운해요. 그날 못 들으면 다시 들을 수 없으니 얼마나 섭섭하게요” 순간 울컥하며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할매의 순전한 이 믿음 앞에, 나는 매번 고개가 숙여진다. 예배 때마다 가장 멀리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임을 믿는다.

이렇게 할머니들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쁨이 커져만 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 기쁨은, 전도의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6년 4월부터 코로나 19가(2020.02) 발생하기 전까지 매달 1, 6일(1, 6, 11, 16, 21, 26)에 있는 오일장 전도를 나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를 고르지 않고 나갔다. 무조건 나갔다. 참으로 미련해 보였지만, 관계 전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노방전도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도지를 받고 전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매번 오일장마다 나가는 이 일이, 재미없고 지치는 것도 사실이었다. 때때로 참 바보스럽고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기도 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업고 전도지를 전하는 아내에게는 왜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렇다고 실패한 전도인가? 아니다. 전도지를 처음 나누던 해에 “도천리에도 교회가 있냐?” 라는 주천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3년 8개월 동안의 시간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천리에도 교회가 있음을 각인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도천리에 교회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 영혼도 전도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선포되었으니, 지난 4년여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또한 더할 나위 없는 감사가 있다. 전도지를 받고 전도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귀농자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다. 또한, 주중이면 대전, 부산, 부천(인천, 용인)에서 일상을 보내고, 목(금)요일 퇴근 후에 영월로 오셔서 주일예배에 참석하신다. 고될 법도 한데 힘든 기색 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배당을 찾으시니, 너무나 큰 감사요 은혜일 수밖에 없다.

매주 예배당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해 드리고 싶다. 이것이 나와 아내의 기도 제목이고, 먼 길을 오감에도 힘든 기색 없이 예배당을 찾는 성도님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게다.

농촌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함께 잇대어 감’을 알아차릴 때이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라는 강한 울림을 주셨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순서(롬 12:15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와 달라서 펍 당황스러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늦은 새벽이 돼서야 ‘이 땅에는 우는 자가 더 많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라는 분명한 목회 뜻대가 생겼고, 이 뜻대는 농촌 목회를 통해서 더욱 선명해졌다.

농촌교회이다 보니, 성도들과 ‘함께 잇달’ 일이 참 많다. 목회자인 나는 수시로 심방을 하고, 덤거나 추운 날이면 팔바와 굴 한 봉지로 문안한다. 연로(年老)한 할머니 성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먼저 알아보고 “목사님 또 오셨냐?” 라는 의사 선생님의 농(弄)이 반갑기 까지 하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밥을 제대로 먹는지?’ 가 늘 걱정인가 보다. 봄나물을 시작으로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까지 한 해 내내 사택 문고리에 걸고 가신다. 명절 음식과 자녀들이 보내온 과일을 수줍게 내민다. 삼시세끼를 먹어도 남을 만큼의 양이다. 사랑이다. 일전에 쓴 글이 있어서 소개한다.

새벽기도회에 오신 우리 할매가, “어제 밤, 자녀들이 떡을 해 오셨다” 라며 품 안에서 떡 한 덩이를 꺼내신다. 새벽기도회에 오시는 길과 예배드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떡이 식으면 어찌나?’ 싶으셨는지 가슴으로 품고 계셨던 게다.

손자뻘 되는 목사에게 조금 더 따뜻한 떡을 주고 싶으신 우리 할머니의 사랑에 아침부터 가슴이 울컥하여 어깨가 들썩인다.

‘나는 참 악하고 약한데, 어찌다 이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을까?’

‘나만큼 귀한 사랑을 받은 목회자가 어디에 있을까?’

‘나만큼 행복한 목회자는 또 어디에 있나?’

오늘 나는 떡 한 덩이가 아닌, 심장을 받았다(품 안에서 떡을 꺼내는 모습이 심장을 꺼내는 모습처럼 보였다). 분에 넘치는 사랑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잘 기억해야겠다. 전해 받은 떡의 온기가 가득하다. 꽤나 괜찮은 아침 식사를 한다.

신학생 시절, 호기롭게 ‘농촌 목회’를 외치며, ‘이왕이면 가장 젊고 건강할 때 농촌 목회를 경험하리라’ 마음먹었다. 이렇게 산골 예배당에서 우당탕 좌충우돌하다 보니 어느덧 여섯 해가 지났고, 오늘도 나는 느리지만 반듯하게 ‘함께 울고 웃으며’ 잇대어 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강원도 산골에서 6년이라는 시간 보내니, 이래저래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

다.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 못 할 사정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다.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냈다. 솔직히 말하면, 시골 목회는 참 어렵고 힘들다. 매번 새롭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반복된 일상과 무료한 일상이 재미없을 때도 있다. 조급함도 있다. 내면의 갈등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가장 힘들다.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울기도 참 많이 울었는데,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있고, 희로애락(喜怒哀樂)이 있고, 내 젊음의 열정이 있으니, 그만큼 기쁨도 크다. 참 감사한 일이다.

오늘도 ‘작은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주눅 들고, 사역에 자신감까지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음을 또한 너무 잘 알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늘도 어딘가에서 각 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개척목회자들을 마음껏 응원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주의 길을 걷고 있는 동지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한다.

“목사님(전도사님), 우리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니,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 함께 울고 웃으며 충성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하나님의 사명 앞에) 언제나 참되기를 바란다. 참되자.



대구 북대구교회 _ 양경규 목사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 북대구감리교회

자칭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 소장인 양경규 목사.

행복발전소 소장이 되는데 15년이 걸렸다. 저에게는 목회자로 사역에 도움이 될 법한 재능들이 한 가지도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다.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실거면 재능을 한 가지라도 좀 주시지…….’

우리 대구지방회에서 감리교회를 알리기 위해 대구 극동방송을 통해 지방회 목회자들이 3개월에 걸쳐 돌아가며 10분 설교를 했다. 당시 내 차례가 되어 설교 녹음을 할 때 방송 부장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다. 당시 부장님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런데 부장님도 들어보고는 다음 봄 프로그램 개편 때 매주 6주간 목요일마다 생방송으로 진행해 주시면 더 좋겠다며 원고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사랑의 뜰안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이다. 감사한 것은 당시 청취자 반응이 좋아 3개월을 더 연장했다.

나는 이 방송을 통해 그동안 우리 교회의 목회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복발전소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2001년 6월 9일(토)에 결혼식을 올리고 13일(수) 개척 아닌 개척예배를 드렸다.

당시 북대구교회는 오래 전 개척되어 잘 성장하던 중 건물도 사라지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모두 흩어지는 상황을 겪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먼저, 검단 산업단지 끝자락 2층상가 안쪽에 합판으로 사택을 만들었다. 앞쪽은 예배당. 뒷쪽은 공부방으로 만들며 목회를 시작했다. 이곳은 전투비행기 이착륙코스라 있는 지역이라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 그리고 시골스런 도시외곽지역이다. 이런 곳에 개척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임대료가 저렴했다. 당시 가진 돈이라고는 대전 목동에 있던 자취방의 전세금 오백만



원이 전부였다.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철저히 계획하
소 준비한 개척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으로 고백하고 있다.

“꿈을 가꾸어 실현하는 교회 (마 25:14-30)”를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로
삼고 있다.

목회 초기의 목표는 아이들을 빨리 전도해 10년 안에 자립하는 것이었다. 당
시 처음 만난 아이들이 중2, 중3이었으니 불가능한 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대신 우리 교회는 2009년 6월에 지금 건물을 구입해 그
해 9월 봉헌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당시 대출받은 팔천만원에 대
한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갚아 드디어 올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 참으로 많은 분의 눈물과 헌신을 했다.

공부방으로 시작한 사역은 2005년 8월에 북대구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해 오
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 갔고 이곳은 많
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통로가 되었다. 지금도 매일 36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 또한 행복발전소의 선교 대상이 되고 있다.

생똥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축구다.
2006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청소년 축구선교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우
리 교회 축구는 월드컵축구보다 더 재미있다. 우리 교회는 2006년부터 감리교
교회학교 성장을 위해 시작된 감독회장기 어린이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대구지
방과 삼남연회를 대표해 계속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전국대회서 중등
부가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로 지금까지 중등부는 4회 우승, 고등부도 1회 우
승, 준우승, 3위를 한번씩 차지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개최되지 않
지만 마지막 전국대회에서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동반우승을 차지하기도 했
다.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으리
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고, 이후로 우리는 지방과 연회의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로 참여하고 있다.

생각하면 신기하다. 사실 나는 축구를 잘 못한다. 그런데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 소장이 되기까지 정말 축구를 많이 했다. 우리 지역은 검단공단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그래서 매주일 오후예배를 마치면 베트남팀, 인도네시아팀과 국제경기도 진행했다. 그런데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해외선교사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예배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다. 그들 중 어느 분은 미등록이주 아동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벌써 4학년이 되기 조차 하였었다.

우리 지역은 비행기 소음이 심각하다. 귀가 찢어질 정도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사가 잦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이곳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있어 지역민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렇게 2009년 꿈이 있는 도서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교회 건물 안에 머문 도서관은 3년 전부터는 교회 앞 지하상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자리잡아 성장했듯이 도서관도 교회 건물에서 나온 후 나날이 발전해 1-2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으로 성장했고, 이를 통해 선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내 독거노인들과 장애인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주 금요일 반찬 배달을 한다. 15년 정도 진행 중인데, 그동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 사역을 지속되다 보니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와 배달 봉사를 돕기도 한다.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일하기에 무작정 지원 가점수를 늘리기 보다는 20가정으로 정해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원년부터 시작된 바자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이 찾는다. 그래서 바자

회를 마치면 남은 물건들은 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이들은 이것을 몇 박스씩 고향으로 보내곤 한다. 봄, 가을 진행하다 코로나로 잠시 쉬었는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꿈이 있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준비한 크로키 작품과 어른들의 POP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도 가졌다. 또 동네 유치원에서도 우리 교회로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체험 활동과 쿠폰 잔치도 진행했다.

지역주민과 가까워지기 위해 청년희자율방범대원으로 순찰차를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참여 예산 위원 등 우리 동네가 대구 북구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다. 또한 동네에 있는 더 많은 분에게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를 알리기 위해 프리테니스 동호회에도 가입해 섬기고 있다.

오늘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전 10:33)”는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한다. 그 다음 그들의 열려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의 궁극적인 목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못할 일도 아니다. 이 사역은 저처럼 아무 재능도 없는 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고 없으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는 모든 이들이 함께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으니 태신자들의 숫자가 한없이 늘어갈 수 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 사역을 과연 누가 감당해 가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일단 저와 아내가 현장에서 앞장서 일한다. 혹시 저와 아내가 동시에 몸살이라도 난다면 그 주간은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15년 동안 그런 인을 거의 없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가 손을 뗀지는 오래 되었다. 꿈이 있는 도서관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장로교회에 출석하는 서권사님이 화가이며 미술분야에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어 우리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내 교회 네 교회를 넘어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맺는다. 꿈이 있는 도서관 POP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른들과 아이들을 저와 권사님이 정성을 다하여 섬겨 나가고 있다. 우리 섬김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 교회 네 교회를 넘어 끝까지 협력하여 헌신하고 섬길 것이다. 나는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를 저와 우리교회의 힘으로만 돌리려 하지 않는다. 내 교회 네 교회, 신자 불신



지를 넘어 모두가 함께 협력함으로 사역하고 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가능하다.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지역 환경이 최악이고 물질과 인력이 없는 우리 교회도 감당하는데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에게 필요한 재능이라곤 한 가지도 없는 저도 감당하는 데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동네 행복발전소는 결코 부흥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햇빛교회 _ 송성민 전도사

1. 교회 기본정보

서울연회 강북지방에 속한 햇빛교회는 강북구 4.19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햇빛교회는 1990년 강북구 수유동에서 시작되어, 이후 번동으로 이전 후 네분의 목사님을 거쳐 2019년 12월 22일부터 송성민 전도사가 부임해 사역하고 있다. 부임 후 1년의 시간 동안은 동일한 장소인 번동의 예배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승리교회(서울연회 강북지방 / 담임목사 : 박영진)에서 문화사역 공간인 'Awesome'(어썸)을 햇빛교회의 예배처소로 공유해 주심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이곳 4.19거리에서 1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

2. 개척(부임)동기와 과정

▶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잠16:9)

단독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승리교회)의 담임목사님의 제안 덕분이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저의 부족함에도 나름 열심히 사역하며 동역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보이셨는지 개척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따로, 또 같이 협력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교회를 세워가는 행복한 상상을 함께 실현해 보는 것이 어떨지 기도하며 고민해 보라는 제안과 기회였다.

나는 사역을 하며 한 번도 개척에 관한 기도와 생각 그리고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 더 분명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다. 제 스스로 한 번도 계획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길이었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의 이면에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개척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개척을 하려던 계획은 여러 사정들이 겹쳐지며, 없던 것이 되었고, 사역에 대한 여러 생각들과 마음들,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한 혼란스러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분명하고도, 확실했다. 개척의 계획이 무산되고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단독목회의 자리가 저에게 주어졌다. 그곳이 바로 햇빛교회였다.

햇빛교회에 처음 방문하여 주보를 열어본 순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인간적인 저의 계획과 생각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 주보에 새겨 있는 햇빛교회 비전의 말씀이, 개척을 기도하며 준비하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햇빛교회는 단독 목회지였지만, 개척과 다를 바 없었다. 햇빛교회를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게 어려움이 되지는 않았다. 단독 목회에 대한 망설임이 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개척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기에 교회 자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감사로 고백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비전과 전략(교회론과 목회철학)

▶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햇빛교회의 변하지 않는 표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햇빛교회’이다.

단독목회를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

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제 신앙과 삶을 지탱했던 말씀이기도 하며 이 말씀이 햇빛교회의 목회철학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 주셨고 그것의 회복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햇빛교회는 이런 말씀과 생각을 기준으로 세 가지의 비전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려 한다.

첫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목회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가치판단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하려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목회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시선과 마음을 두시는 곳에 함께 시선과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는데 귀히 쓰이는 교회와 목회가 되려 한다.

셋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목회다.

하나님을 향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 그 이상의 것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며, 이것을 이웃과 함께, 이웃에게 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소망한다.

햇빛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더하시는 교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며 기도함으로 세워가고 있다.

4. 교회의 사역

▶ 사역 정의 : 나의 사역은 ‘함께 사는 것’이다.

햇빛교회의 사역의 포커스는 ‘함께 사는 것’이다. 성도의 삶 가운데 목회자가 함께 살고, 교회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함께 살아갈 때, 교회가 이웃을 위해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을 믿음으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려 하고 있다.

▶ 핵심 사역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1)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꽃

단독을 시작한 후 마음 가운데 다짐했던 것 중 한 가지는 예배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주중예배(새벽&수요)가 멈추지 않기 위해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2) 후원을 감사로 받고, 선교하는 사역

햇빛교회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의 사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심사역이자,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어가려 한다. 햇빛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비전교회임에도 외부지원 그 이상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 햇빛교회는 부임감사예배, 이전감사예배, 선교 편지 등을 통해서 외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라면, 개인적인 현금은 철저히 교회를 통해 교회에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감사하게 세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것 이상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구지역아동센터에 재정을 흘려보냈다. 절기현금을 ‘고난함께’ 라는 단체에 지원하였고, 미안마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또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

기에, 앞으로도 햇빛교회는 지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가려 한다.

3) 공간을 활용한 문화사역

승리교회에서 문화사역 공간을 햇빛교회의 예배처소로 공유해 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사역이 ‘문화사역’이었다. 그 시작을 ‘MOMENTS’(감정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그림 전시회를 한 달 간 진행하였다. 전시는 무료로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개방하였고, 그림 수익의 일부는 미안마 선교를 위한 도네이션을 보냈다. 또한 교회 앞 식당과 카페와 협력해, 쿠폰을 발행하여 전시회 방문 후 식당&카페를 방문하면 할인해 주고, 반대로 식당과 카페를 방문 후 전시회를 오면, 전시회 굿즈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쿠폰을 통해 낸 수익의 일부를 동일하게 미안마 선교를 위한 도네이션으로 진행했다. 이 사역을 통해 교회와 식당과 카페는 더 가까운 이웃이 되어 더 긴밀히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세워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외에 미니콘서트와 또 다른 문화 사역들을 기획 준비하려 하고 있다.

5. 초기 전도 / 핵심 멤버 세우기

▶ 초기 전도

단독목회의 시작과 함께 동행하게 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은 많지 않다. 그 중 햇빛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담임목회자와 성도가 먼저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길이와 크기가 다르게 제각기 놓여진 장의자와 그 뒤에 중구난방으로 놓여진 간이의자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구 등 누가 보더라도 개척교회 같은 모습이었다. 이곳이라면 저도 매일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한 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정리하기 시작



했다. 한 공간이지만 예배 뿐 아니라 식사와 친교, 그리고 교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장의자를 처분하고, 깔끔한 접이식 의자를 줄맞춰 셋팅하고, 예배실 전체를 새롭게 페인트칠 했다.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대한 넓게 사용하였다. 창고처럼 사용되던 목회실을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으로 꾸몄고, 목회실은 예배실 한 편으로 옮겼다. 제가 먼저 오고 싶고, 지키고 싶은 교회로 셋팅해 두고 싶었다.

공유교회의 공간인 승리교회의 Awesome(어썸)으로 교회를 이전할 때에도 이전의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담임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이웃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자는 이유가 가장 컸다.

또 한 가지 전도의 방법은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다. 첫해와 올해 장소는 달라졌지만, 햇빛교회는 여전히 이웃과 함께 살고있다. 담임목회자가 매일 교회를 지키며 오가는 가운데 이웃들 사이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며,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절기와 행사마다 크고 작은 마음의 선물들을 교회 주변상가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려 하고 있다. 아직 뚜렷한 열매가 나타나진 않지만, 뿌려진 씨앗

이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햇빛교회는 햇빛교회만의 방법으로 전도를 실천하고 있다.

▶ 핵심 멤버 세우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핵심 멤버를 세워가는 방법은 성도의 삶에 작은 감동의 울림을 마음 가운데 던지고 있다. 출산을 앞둔 성도를 위해 교회에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두고, 성도가 조리원에 퇴원하는 날, 미리 꽃다발을 집으로 배송시키고, 태어난 아이가 첫예배를 드리는 날 아이를 위한 기도문을 액자로 만들어 준비해 놓는 등 한 성도와 그 가정 가운데 작은 감동의 울림을 주기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며, 핵심 멤버를 세워가고 있다. 이런 작은 감동 가운데 말씀이 입혀졌을 때, 그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는 말씀을 통한 양육의 시간을 가지려 계획 중에 있다.

6. 마치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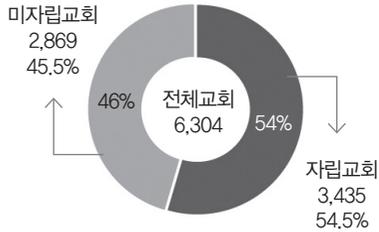
단독을 시작하고, 여러 선·후배 목회자들이 늘 제게 묻는 질문이 있다. ‘교회는 어때요?’

그때마다 나는 ‘은혜로 잘 세워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제가 햇빛교회를 담임한 후 2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햇빛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햇빛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 당장 뚜렷한, 눈에 도드라지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그리고 함께하는 10명 남짓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시다. 앞으로도 햇빛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 저의 삶과 우리의 삶에 그러하셨듯이, 내일이 더 좋은 모습으로 햇빛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것이다.

| 감리회 미자립교회 전체현황(국내) |

1) 2020년 결산기준(국내)

자립	3,435
미자립	2,869
전체	6,304



2) 연회별 교회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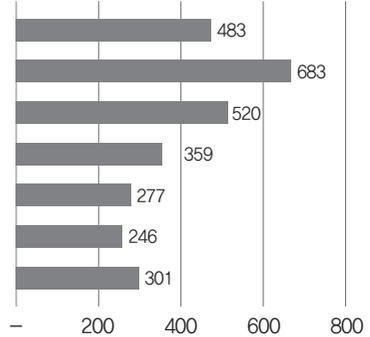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교회수	398	389	1,085	789	576	687	413	612	660	418	277	6,304
자립	251	213	621	421	317	410	194	289	409	192	118	3,435
미자립	147	176	464	368	259	277	219	323	251	226	159	2,869
비율	36.9%	45.2%	42.8%	46.6%	45.0%	40.3%	53.0%	52.8%	38.0%	54.1%	57.4%	45.5%

3) 2021년 교회 개척, 폐지수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합계
개척	4	1	13	7	4	2	1	9	2	2	2	47
폐지	2	3	9	5	2	2	2	3	1	2	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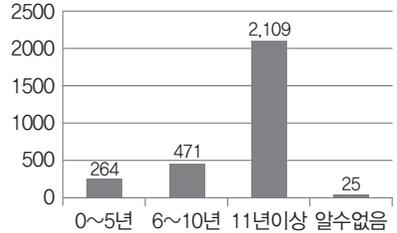
4) 미자립교회 경상비 기준

경상비	교회수	백분율
0~500만원 미만	483	16.8%
500~1,000만원 미만	683	23.8%
1,000~1,500만원 미만	520	18.1%
1,500~2,000만원 미만	359	12.5%
2,000~2,500만원 미만	277	9.7%
2,500~3,000만원 미만	246	8.6%
3,000~3,500만원 미만	301	10.5%
전체	2,8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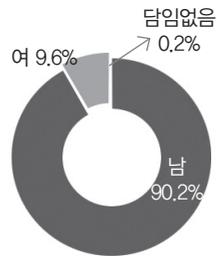
5) 미자립교회 설립 기준

설립기간	교회수	백분율
0년~5년	264	9.2%
6년~10년	471	16.4%
11년 이상	2,109	73.5%
알수없음	25	0.9%
합계	2,869	100.0%



6) 성별기준

성별	교회수	백분율
남	2,588	90.2%
여	275	9.6%
담임없음	6	0.2%
합계	2,869	100.0%



나가는 글

작년부터 한국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혼란과 고통의 중심에 서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늘 가장 약한 지체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한다. 아마 현재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장 약한 공동체는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감리교회는 각 연회, 지방회, 개척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심했으며, 또한 단순히 일회성, 일회성 금전지원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았다. 올해 진행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이런 교회들, 특별히 미자립교회와 관련된 유의미한 법안이 결의되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자립교회 기준 상향(4,000만원)

우선 미자립교회의 기준이 ‘3,500만원 미만’에서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감리회는 미자립교회의 기준을 교리와 장정에 지정해 놓았다. 이를 기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준으로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를 구분 짓는다. 이 기준이 2013년 3,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전까지는 2,500만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 3,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당시 상향될 때 처음에는 3,000만원정도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심스런 바램과 달리 이 조차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3,500만원까지 상향되었다. 10여년 전의 일이다.

‘자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이다. 즉 ‘자립’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지역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연 예산 4000만원도 부족하다.

우리는 종종 미자립교회의 기준을 상향하면 교단 내의 미자립교회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될 것을 걱정한다. 우선 생각보다 3,500만원과 4,000만원 사이의 교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교단 내 미자립교회의 비율이 높아지면 이것이 감리교회의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판단의 여지가 될 것이라 걱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다른 의미의 왜곡이다. 남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왜곡할까 걱정되어 사실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는 또다른 의미의 왜곡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교단적으로, 연회적으로 미자립교회에 대한 배려의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미자립이기에 콩 한쪽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이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 또한 교단적으로 함께 부담해야할 것이 있다면 미자립교회에게는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게 고려한다. 이것 또한 또 다른 차원의 지원이다.

그리고 이런 최소한의 배려와 고려는 분명 미자립교회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자립되어질 수 있는 길을 견도록 돕는 결과를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방법을 단지 남들이 보기에 너무 많은 미자립교회의 비율로 비출까를 염려해 제한한다는 것은 아쉬운 판단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 최저생계비로 제시된 금액은 현재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에 비추어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 2022년 기준으로 2인 가구 21,852,847원이며, 만약 한명이라도 자녀가 있다면 3인 기준 2,390,370원, 4인기준이라면 더 비용이 상승한다. 이런 숫자들은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낙심하게 만든다. 상당수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이 이 기준 이하이기 때문이며, 미자립 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숫자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개체 교회는 결코 단지 목회자의 생계만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는 목회자의 생계 이외에도 목회활동 및 선교활동 교회 유지, 관리 등 예산이 들어간 곳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의미에서 비추어 볼 때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더 이상 3,500만원으로 머물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많이 변했다.

공유교회에 대한 법안 통과

두 번째, 공유교회에 대한 결의다.

공유는 어찌보면 이전 세대에는 쉽게 사용되지 않던 단어다. 예전에 가구나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자동차 필요한 집기류를 렌탈한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왜 빌려쓰지, 왜 소유하지 않지라고 물었다. 즉 빌려쓴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지속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황을 추구하는 이들이 취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교단들조차 모두 공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지역의 급격한 땅값, 건물임대료 등의 상승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미자립, 혹은 개체 교회가 건축공간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공간을 전세, 월세라는 형태로 빌려 사용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감리교회 안에서도 이런 예배 공간에 대한 공유를 고민하는 시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 공청회가 열렸고, 토론이 이어졌다. 특별히 이번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연이은 요청에 호응하며 공유교회에 대한 조심스런 결의로 이어졌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공유교회에 대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205】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⑥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② 조직과 행정법에 따른 공유교회는 원 소속 지방회에 속한다. <신설>

즉 임대료 등 교회를 관리, 유지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공유교회 제도를 신설하였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등의 개념이 공유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변화로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느냐이며, 또한 이러한 공유교회에 대한 배려와 허용도 이미 기존의 존재한 교회들에 제한하여 허락된다는 점이다.

마무리하며

최근 결의된 법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쉽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방향은 결국 현실에서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이 비록 어려운 한걸음, 한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일지라도 목회 현장이 던지는, 시대 현실이 요청하는 질문과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감리교회가 목회를 준비하며 소명을 따라가는 신학생과 목회준비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변화에 합당한 제도개선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개혁 레시피

SESSION 2

발행일 | 2022년 1월 29일

발행인 | 오일영 목사 (선교국 총무)

편집인 | 김병연 목사 (국내선교부장)

집필 | 최재훈 박영진 신현희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국내선교부)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 02-399-4333/4338

홈페이지 | www.kmcmmission.or.kr

디자인·인쇄 | 디자인통(02-2278-7764)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